

100년 전 연등축제는 어떻게 치러졌을까?

'초파일 행사 100년 역사'를 한 눈에

부처님오신날불교위원회는 최근 연등축제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집 <초파일 행사 100년-연등축제를 중심으로>를 펴냈다.

불교위는 "연등축제의 근현대 변화과정과 정을 밝혀 보기 위해 한국불교연구원과 조계종 행사기획단이 공동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연등축제 제등행렬이 1955년 조계사에서 시작됐음을 확인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자료집에는 1907년부터 2007년까지의 초파일 행사 관련 기사와 제등행렬 약도, 행렬 순서도, 포스터,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다. 또한 부록으로 지난 100년간의 초파일 날짜와 제등행렬·연등축제일이 도표로 정리돼 있으며, 1947년 4월 16일 작성된 '석조강탈절기념불축에 관한 건' 문서도 실려 있다.

#1907년 '봉원사에서 경축예식' 기록

그렇다면 근현대의 초파일 행사와 연등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한 연등행사는 일찍이 신라 경문왕 6년(866) 황룡사에서 간등(看燈)을 했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불교민속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탑돌이 또한 신라 원성왕대(785~799년)부터 기록이 보인다.

근현대 초파일 행사 기록은 1907년 5

월 24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음력 사월 초파일은 석존탄신이라. 명진학교 일반교원이 학도(學徒)를 반종(伴率)하고 봉원사에 전왕(前王)하야...경축예식을 봉행했다'는 데서 시작된다. 1909년 5월 30일 '황성신문'에는 '육불절(浴佛節)인 고로 덕수궁에서 의친왕 이하 각 황족(皇族)에게 주찬(酒饌)을 하사하셨다더라'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들어간 직후에는 행사 주관인 일본의 정토종으로 변했고, 1911년 행사는 일본 순사가 직접 호보를 했다는 기사가 있다. 1912년부터는 행사 규모가 점점 커져 낮과 밤에 걸쳐 두 번씩 행사를 하게 됐다. 이 해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각황사에서 행사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1920년에는 조선신도회가 주최한 초파일 불축행사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입장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또한 법요식 뿐 아니라 설교·강연·음악·무용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었다. 관불과 관등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1937년부터는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초파일 행사가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치러지게 됐으며, 해방 후 다시 음력 행사가 공식행사로 자리 잡았다. 1940년대에는 종파마다 다르게 진행되던 행사를 종파연합으로 치르기도 했다. 광복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관불행사 및 육불행사,

관등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제등행렬은 1955년 조계사에서 시작

현재 치러지고 있는 형태의 제등행렬은 1955년 조계사에서 시작됐다. 이 해 제등행렬은 조계사를 출발해 종로3가→을지로3가→시청→중앙청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이어졌다. 이후 1962년까지 조계사와 동국대 부근에서 치러지다 1963년 무대가 동국대학교로 옮겨졌다. 1963년 제등행렬은 동국대를 출발해 을지로3가→종로3가→조계사→중앙청→태평로→을지로입구→을지로4가를 거쳐 동국대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1975년 초파일의 공휴일 제정으로 인



을겨 지난해인 2007년까지 치러졌다.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 올해부터는 동국대를 출발해 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연등축제 변화과정 보기 위해 펴내 신라시대부터 불교민속 자리잡아 1910년 이후 日 정토종에서 주관하기도

해 제등행렬 참여인원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어 1976년부터 1995년까지는 여의도로 자리를 옮겨 여의도광장을 출발해 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실시됐다. 이후 1996년 동대문운동장으로 장소를

기성 선사의 수행 트렌드는 '淨攝禪教'

이종수씨 보조사상연구원 월례학술회의 발표



기성선사의 사상을 '정섭선교'라 표현한 이종수씨(가운데)와 논평자 김종진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좌), 한상길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우).

'왕과 나' '이산' 등 사극 열풍과 함께 몰아친 조선시대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도 일었다. 3월 15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의 제79차 월례학술회의가 그것.

'조선시대의 불교사상과 인식'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이종수(동국대 강사)씨는 '18세기 기성패선의 정섭선교론'에서 18세기 기성 대사의 선사상을 정토종 중심으로 선교를 아우른 '정섭선교(淨攝禪教)'로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18세기는 승려 33인이 문집 36종을 간행했을 정도로 조선조에서 불교가 왕성했던 시기로 구분되며, 기성 대사는 가장 많은 문집을 남긴 서산 대사의 법계를 잇는 편양계 스님이다.

이씨는 "선승이라는 칭호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선종의 승직명이던 것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수행

승에 대한 일반적 호칭이 됐다. 일반화 된 선사들을 사상에 따라 구분할 필요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기성 대사의 정토론은 교학파와 선학을 두루 섭렵한 이후에 염불문을 세워 회통시킨 것이라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한편 민순의(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씨는 '정도전과 권근의 불교종파 이해와 의의'에서 정도전과 권근의 대우를 '정섭선교(淨攝禪教)'로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또 김경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씨는 '무기와 62건의 관계'를 통해 외도 사상에 대한 붓다의 분석과 대응방법을 62건과 무기를 통해 접근하고자 했다.

김씨는 "무기로 표현되는 붓다의 침묵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적극적 단념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석주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4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제8대, 15대, 23대)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제6대) 등 종단 주요요직을 역임하며 어린이 포교부터 노인복지, 군포교, 교육불사, 여경사업, 종단행정 등 근현대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석주 스님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석주정일문도회(대표 월회)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는 4월 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석주 스님의 생애와 사상·교육·포교·종단개혁·근현대 한국불교 등 5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는 학술

회의는 송운 스님(보문사 주지)이 '석주 스님의 생애와 사상', 홍윤식 교수(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가 '석주 큰스님과 종단개혁불사',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석주 큰스님과 교육불사', 고명석 연구원(조계종 포교원)이 '석주 큰스님의 포교활동', 법진 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이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술회의 개최에 앞선 4월 8일 오전에는 철보사에서 석주정일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다례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11)한국불교연구원

kibs.or.kr

연구·실행 운동·세계화 '견인'

공동 연구·공동 수련·공동 참여의 한 마음으로 지성불교·생활 불교의 요람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목탁이 되고자 한 단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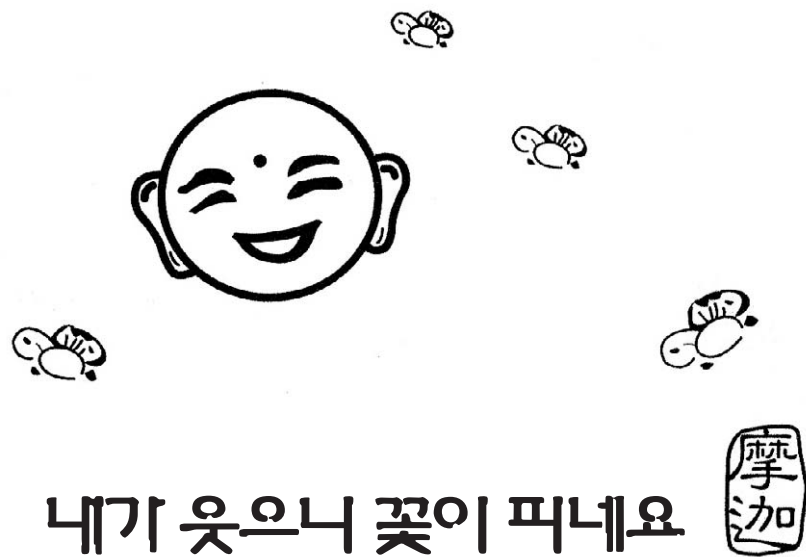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불교의 사상·역사·예술 등을 연구하며, 올바른 실행을 정립하고, 해외로 한국불교를 선양하는 단체

다. 다양한 불교강좌를 개최해 깊이 있는 불교학을 갈구하는 불자들에게 갈로수 역할을 해온 연구원은 故 이기영 박사가 1974년 설립해 1997년부터 정병조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1985년 창간된 계간 학술지 <불교 연구>는 제28집까지 발간됐다. 연구원 출판부는 <고려시대선사상 연구> <실천불교> <반야심경의 세계> 등 다수의 불교서적을 발간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로 중국내 한국 구법승을 조사한 연

구원은, 1차년도 삼국 및 신라중대를 시작으로 2차년도 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3차년도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중국 내 한국구법승 자료를 정리했다.

연구원의 올해 중점행사는 6월 28일 개최 예정된 '실크로드세미나'다. 문무왕 사무차장은 "실크로드 지역의 불교문화를 중국 섬서사범대 학자들과 함께 발표하는 국제학술회의다. 하반기부터는 실크로드 관련 연구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02)762-5624
조동섭 기자



나누는기쁨공동체 · cafe.daum.net/jurira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당신은 마음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이관승을 위한 자비명상 - 집착을 벗어나 자유로움으로

4월 14일 - 18일 (4박 5일) 85만원

재가자를 위한 자비명상 -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5월 26일 - 30일 (4박 5일) 85만원

사관승을 위한 자비명상 - 신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6,7월 매주 화요일 8주와 8월 중 (4박 5일) 180만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십시오

* 문의 및 접수 : 천안 만일사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63 ☎ 041)622-1190

티벳이 자유롭길 바랍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합니다.